

# 데스크시각

이종태



살충제가 들어있는 중국산 냉동만두 때문에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까지 발각 뒤 집힌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대형 만두회사들이 뜬금없는 위기를 맞았고, 심지어는 골목 부식점에서 팔리던 국산만두가 퇴출 당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지금, 지구촌은 또 멕시코발(發) 인플루엔자 A(H1N1·신종 플루)로 인해 혼돈에 빠져 있다. 5월 중순까지 33개국에서 5천7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61명이 숨진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에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로 인해 세계는 초긴장 상태다.

## 소비자 보호가 중요

이런 혼돈은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을 가져왔다. 한때 25%까지 곤두박질쳤던 국산 돼지고기값은 신종 플루가 돼지고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

면 북쪽미산 돼지고기에 밀렸던 유럽산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맹렬한 수출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양돈업계도 신종 플루 확산을 계기로 안전

성이 입증된 국내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의욕에 가득 차 있다.

이 시점에서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광우병 파동'으로 불거진 복잡한 쇠고기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난해 6월 쇠고기를 포함해 쌀 음식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후 대상은 돼지고기·닭고기 외에 배추김치 등으로 확대되면서 어지간한 코흘리개들도 원산지 표시제를 인지할 정도가

됐다. 영어로 'Rule of Origin(RO)'로 표기되는 원산지 표시제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는 데 있다. 소비자 곧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상품의 품질과 관련해 원재료의 출처지역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훌륭한 취지로 출발한 원산지 표시제가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원산지 표시업체의 영업면적이 도마 위에 오른다.

최근 농식품신용보증연구원이 수입쌀을

사이에 수입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된다.

## 허술한 제도 보완 절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누룽지의 경우 제조업체의 원산지 표시는 의무인 반면 사육업체 의무규정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배달용 음식 또한 원산지 표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는 마찬가지다.

치킨이나 탕수육·보쌈·족발은 물론 볶음밥 등 배달용 쌀 음식은 포장용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강제화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다. 허술한 관리나 단속 역시 입찰에 오른 지 오래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나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되,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거나 허위표시를 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숨방망이'가 아니라 '불방망이'로 단속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개방 위기에 봉착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최상의 정책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종태 시화2부장 jitee@kwangju.co.kr

# 왜 원산지 표시제인가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무작위 방문조사한 결과, 밥쌀용 수입쌀을 사용하는 음식점의 90% 이상이 원산지 표시제(매장면적 100㎡ 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조사결과는 광주·전남지역의 사정과는 무관하지 않다. 음식점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제를 비껴간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 업체의 절반 이상은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기고

김지수



광주를 상징하는 유형물로는 무등산이 단연 으뜸이고, 무등산의 절경은 근래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된 주상절리대인 서석대·입석대·규봉암의 3대 기암과 그 벼들이 무너져 쌓인 장엄한 너털길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서석'을 가끔 들어 낯익고, 전남대 은 뒤 서석대를 오르도 무등산 옛 이름이 서석산인 줄은 알았으나, '서석'의 발뜻은 몰랐다.

올 4월 규봉암에 들른 인연으로, '규봉(圭峰)'의 본뜻을 밝히고자 자전을 찾

다. 천자의 형제나 삼촌인 공작(公爵)은 궁실 모습을 새긴 9치(寸) 길이의 환규(桓圭)를 쥐고, 후작과 백작은 각각 사랍 몸 모습을 새긴 신규(信圭)와 공규(躬圭)를 쥐는데 똑같이 길이가 7치며, 자작은 곡식을 새긴 5치의 곡벽(穀璧)을 쥐고, 남작은 부들을 새긴 5치의 포벽(蒲璧)을 쥐고, 임격히 말하면, 규는 공후백작까지만 뜻한다. 이 옥 막대기가 주상절리대로 오락가락 기둥 모습을 띤 서석·입석·규봉과 아주 비슷하게 생

## 서석(瑞石)과 규봉(圭峰)의 뜻

었다. 물론 '규봉'이 중국 지명이며 당나라 때 유명한 종밀(宗密)선사가 머문 곳이란 역사는 알았고, 아마도 의상대사가 절을 창건하면서 그 이름을 따왔을 거라고 어렵듯이 추측만 해왔다. 그 관계를 밝히면 뭔가 좀 드러날까 기대했는데, 자전에서 '규(圭)'자를 찾으니 서석의 신비까지 너무 신기하게 풀렸다.

'圭'는 본디 '상서로운 옥(瑞玉)'의 뜻인데, 고대 중국에서 천자가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오작(五爵)을 봉할 때 신표로 내려, 귀족이 천자를 알현하거나 가묘에 제사지낼 때 손에 쥐고 들어가는 옥으로 만든 신분증을 가리킨다. '서(瑞)' 자체도 본디 옥으로 신표를 삼는 걸 뜻하니, 결국 '圭'는 '瑞'와 같은 뜻으로, 후대 벼슬아치들이 입금을 벌 때 쥐(차)는 홀(笏)의 전신이다. 옛날 봉건 귀족은 워낙 존귀한지라 '옥'으로 만든 '圭'를 썼는데, 나중에 벼슬아치들은 수도 많고 직위도 낮아져 대(竹)로 만든 '홀'로 바꿔 쓴 것이다.

근데 '규'의 모습을 보면 비빔은 쉽게 풀린다. '圭'는 위는 하늘을 본떠 둥글게 다듬고 좌우에 따라 여러 무늬를 새기고, 아래는 땅을 본떠 네모지게 만들어, 자연의 모습과 음악의 시작을 상징한

다. 천자의 형제나 삼촌인 공작(公爵)은 궁실 모습을 새긴 9치(寸) 길이의 환규(桓圭)를 쥐고, 후작과 백작은 각각 사랍 몸 모습을 새긴 신규(信圭)와 공규(躬圭)를 쥐는데 똑같이 길이가 7치며, 자작은 곡식을 새긴 5치의 곡벽(穀璧)을 쥐고, 남작은 부들을 새긴 5치의 포벽(蒲璧)을 쥐고, 임격히 말하면, 규는 공후백작까지만 뜻한다. 이 옥 막대기가 주상절리대로 오락가락 기둥 모습을 띤 서석·입석·규봉과 아주 비슷하게 생

'규봉'은 중국 시인(장안) 남쪽 종남산에 있는 봉우리로, 그 모습이 '圭'처럼 생겨 붙인 이름인데, 당의 유명한 고승 종밀선사가 이 산에 주석해 규봉대사라 부른다. 당에 유학한 의상대사도 틀림없이 규봉에 들렀을 것이며, 이곳 무등산에 절을 지으면서 '圭'처럼 생긴 주상절리대를 보고 규봉을 본떠 이름짓지 않았을까? 의상대사가 화엄경의 핵심 요지를 210자로 간추려 '법성계(法性偈)'를 지었고, 규봉의 종밀선사가 화엄종의 제5대조인 사실은, 결코 우연치 않은 묘한 인연이다.

3대기암 중 다른 하나는 '圭'의 뜻풀이인 '서옥(瑞玉)'에서 '옥'을 '돌'로 바꿔 벼슬아치들이 입금을 벌 때 쥐(차)는 홀(笏)의 전신이다. 옛날 봉건 귀족은 워낙 존귀한지라 '옥'으로 만든 '圭'를 썼는데, 나중에 벼슬아치들은 수도 많고 직위도 낮아져 대(竹)로 만든 '홀'로 바꿔 쓴 것이다. 근데 '규'의 모습을 보면 비빔은 쉽게 풀린다. '圭'는 위는 하늘을 본떠 둥글게 다듬고 좌우에 따라 여러 무늬를 새기고, 아래는 땅을 본떠 네모지게 만들어, 자연의 모습과 음악의 시작을 상징한

<전남대 법대 부교수>

# 기고

최지성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스승의 은혜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된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생에게 선생님은 부모와도 같은 존재다. 제자들을 위해 종일 수업에 각종 잡무,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지도, 학생 상담까지..

최근 모 언론에서 '학원선생보다 외면받는 학교 교사들'이란 기사를 읽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이나 진학에 대

우리 학교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분의 선생님인 계신다. 바로 이사장님이시다. 종종 타 사립고교에서 이사장의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던 하지만, 승덕고 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한다. 이사장님은 매년 많은 장학금으로 우리의 꿈을 키워주신다. 더운 여름철이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 주시고, 겨울이면 호빵도 '쏘시는' 멋쟁이 할아버지이시기도 하다.

## 가슴에 새기는 스승의 '제자 사랑'

해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상담하는 게 효과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교육 현장에서 '제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무척히 짓밟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사실 우리 학교만 해도 담임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체크하고, 생활 상담은 물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신다.

지난 겨울방학 때 담임선생님과 복도에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난로를 켜놓고 앉아 계시는 선생님 옆에 있으면서 복도가 매우 춥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날 상담을 통해 난로보다도 더 따뜻한 선생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평범한 성격으로 입학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는지도 알게 됐다. 제자를 자식처럼 아껴주시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성적 향상을 물론 학생들의 머물고 싶은 학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사장님은 학생들을 만날 때면 '사랑은 몇 번이고 거듭날 수 있다'며 격려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모이고 모이다 보니 학생들의 성적도 자연스럽게 속속 올라가게 되는 듯하다.

그리고 얼마 전 광주 수능 성적이 전국 최고라는 소식을 접하고 가슴 한 칸에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묵묵히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이다.

이번 광주 교육의 쾌거는 나에게 우리 학교와 광주 교육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고,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한층 높여 주었다.

"진정 친자식이라면 어떻게 지도하겠는가"를 늘 고민하신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하게 된다.

<승덕고등학교 2학년>

## 고객 도우미로 전략한 은행 경비원, 치안 신경써야

은행에 갈때마다 경비나 청원경찰분들은 아주 친절하게 은행문도 열거나 닫아주고, 대기인들의 순번표도 뽑아주고, 심지어 나이 드신 노인들이 오면 안내는 물론 전표 쓰는 일도 도와준다.

그러나 청원경찰이나 경비가 해야 할 고유 업무는 그야말로 강도와 절도범들로부터 고객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경비원은 은행 고객을 돕는 것도 좋지만 은행 주변에 수상한 오토바이가 없거나, 불량스러워 보이는 청년은 없거나, 혹시 모를 강도 침입에 대비해 어떤 요령으로 그를 막고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를 막아야 하는지

준비하는 게 더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요즘처럼 총기까지 동원한 각종 강도와 오토바이 날치기 사고가 빈발한 마당에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고유의 업무가 아닌데 신경 쓰는 일은 잘못이라고 본다. 보안과 경비는 먼데 떨어져 있는 경찰이 다 책임져 주기 힘들다.

그런데도 은행이 경비원을 고객 도우미로 활용하면서 무장경찰관 근무중이라는 팻말을 사용하면 강도들은 그게 뻔한 거짓임을 알고 언제든 일을 저지를 생각을 하고야 말 것이다.

▲심희수·광주시 북구 대촌동

# 시설

## U대회 유치 D-3...이번엔 꼭 성공하기를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개최지 결정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현지시간으로 오는 23일 밤 8시(한국시각 24일 새벽 3시) 총회를 열고 개최지 결정 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8개월 동안 정부와 유치위, 광주시민의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의 관세는 광주와 캐나다 에드먼턴의 2파전으로 분석된다. 집행위원 27명의 1차 투표에서 광주와 에드먼턴이 대만의 타이베이를 제치고 2차 투표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지난 2013년 유치전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렴치한 행위는 '숨방망이'가 아니라 '불방망이'로 단속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개방 위기에 봉착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최상의 정책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 도 넘은 은행 이기주의의 보고만 있을 건가

은행들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며 제 잇속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공익성을 의면한 채 천민자본주의적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 '꺾기' 실태조사에서 일부 은행이 보증부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 가입을 강요한 사례를 적발했다. 신용위험을 거의 지지 않는 보증서 담보대출을 하면서 해당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예금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

사장의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던 하지만, 승덕고 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한다. 이사장님은 매년 많은 장학금으로 우리의 꿈을 키워주신다. 더운 여름철이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 주시고, 겨울이면 호빵도 '쏘시는' 멋쟁이 할아버지이시기도 하다.

최근 모 언론에서 '학원선생보다 외면받는 학교 교사들'이란 기사를 읽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이나 진학에 대

시한다. 특히 에드먼턴에 비해 국제대회 유치경험이 없는 광주로서는 치밀한 득표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유치 가능성이 높다. 우선 소극적인 자세로 2013 U대회 유치실패의 빌미를 제공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는 23일 최종 개최지 결정에서 광주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막판 유치활동 등을 벌이고 있는 광주에게 백만대군 이상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막판 프레젠테이션에서 집행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시민들 역시 U대회 유치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현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함은 물론이다. 오는 24일 새벽 브뤼셀에서 '유치성공'이라는 낭보가 날아오길 기대한다.

# 無等鼓

안(癩) 환자만을 수용하는 병동에는 날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한다. 같은 방을 쓰는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날엔 서운함보다 기쁨이 솟는다. 나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여서다. 하지만, 밤 사이 환자중 한명이 운명했을 땐 '잘 잤느냐'는 아침 인사도, "오늘은 누가 다녀갈까" 하는 기대도 없다. 무거운 침묵만이 흐른다.

그곳에도 선후배 간의 애뜻한 정이 있다. 환자는 환자끼리, 환자 가족은 가족끼리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다. 정보도 교환한다. 주치의나 간호사를 다루는 방법, 보험료 등 퇴원 후 생활요령 등은 입원 선배가 후배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생존 아이템이다.

무엇보다 열성적인 투병은 아름답다. 최근 암으로 작고한 장영희 서경대 교수의 끈질긴 투병이 환우들에게 꿈을 안겼던 것처럼,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환자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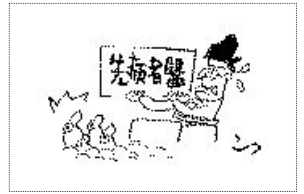
먼저 또는 할인해주면서 서민들에게 비난 수수료를 물린 결과다. 이는 일반 사채업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외국계 은행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외국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월 말 기준 32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2조2천억원 감소했다. 저신용자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 가입을 강요한 사례를 적발했다. 신용위험을 거의 지지 않는 보증서 담보대출을 하면서 해당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예금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

사장의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던 하지만, 승덕고 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한다. 이사장님은 매년 많은 장학금으로 우리의 꿈을 키워주신다. 더운 여름철이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 주시고, 겨울이면 호빵도 '쏘시는' 멋쟁이 할아버지이시기도 하다.

최근 모 언론에서 '학원선생보다 외면받는 학교 교사들'이란 기사를 읽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이나 진학에 대

## 투병 선배



이 의사 역할을 하듯이 '한강의 기적' '외환위기' 등의 경험을 나침반 삼아 위기를 극복해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자는 뜻이다. 그는 "한강의 기적이 어려운 선배들의 영광인 것처럼 지금 그려 나가는 항해지도는 온전히 여러분의

뜻일 것"이라며 "다시 실패를 겪고 싶지 않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이 최근의 경기 호조가 경제 지표 급락세를 겨우 진정시킨 수준이라고 진단한 데 동의한다. 경제활동의 성과 지표 개선을 넘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과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

/김주경 경제부장 jnews@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이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2	체육팀 2200-6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F A X 222-4267>	사 진 부 2200-69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언론·기관 나서 '농촌 금연운동' 확산 시켰으면

도시는 금연열기가 확산 된지 벌써 몇년 이상 됐는데 우리 농민들은 금연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물론 농사일을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고되고 스트레스도 받으니 담배 생각이 안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도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아야 하며, 대부분의 농민이 고령임을 감안해 볼 때 담배는 너무나 해롭다.

가 늘고 있지만 농촌은 동떨어져 있는 특성상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광주일보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흡연을 삼가 합시다" 혹은 "농민도 금연 동참합시다"라는 슬로건으로 금연운동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모든 행정민원이나 서류, 책자 등에도 농민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서라도 농민들의 흡연을 줄여보자. ▲이다음·여천시 평리동